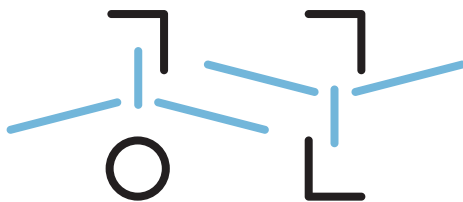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zine.co.kr>



2022
12
5 3 4



Contents

04	기획	공군, 2022년을 보내며
16	특집	굳건한 한미동맹,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다
20	특별기고	‘희망’이라는 절대 무기

22	Aero Detail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28	무에서 유를	예도(銳刀) - 기본이 충실한 조선의 검법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연말을 보내는 공군인들 (상병 황원진)
표 지(뒤) 언제나 철통같은 경계작전을 펼치는 공군 (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2년 12월 1일(통권 제534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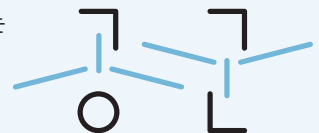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110377)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40 | 한 달, 한 권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 42 | 명상을 말하다 | 친절함에 대하여 |
| 44 | 영화로운 나날 | 다이렉트 메시지(DM)로는 보낼 수 없는 마음 |
| 46 | 클래식 톡톡 | 찾아 듣기 |
| 48 | 트렌드가 보인다 | X세대가 Z세대를 만났을 때 |

-
- | | | |
|----|---------|--|
| 50 | 생각하는 그림 | 후회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
| 52 | 공군인의 편지 | 겨울에도 만개할 활주로의 노루귀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 하사 장석현) |
| 53 | 책읽는 공군 |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제81항공정비창 6급 원지희) |
| 54 | 수용의 미학 | 눈 |
| 55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공군,

2022년을 보내며



2022년의 시작과 함께 느꼈던 찬 공기가 다시금 살갓을 스치는 12월입니다. 지난날의 추억과 앞날의 기대가 공존하는 이 계절, 2022년의 마지막 호에서는 국민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공군이 이뤄낸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력한 항공우주력으로 한 걸음 더

미래기획센터 신설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미래 공군우주력 발전과 과학기술 중심의 스마트 공군혁신을 위해 공군이 올해 1월 1일부로 ‘미래기획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미래기획센터 신설을 통해 공군은 미래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무인체계 발전 등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 조직을 일원

화하는 한편, 미래 공군 발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기획팀, 신기술융합팀, 무인체계정책팀으로 구성된 미래기획센터는 공군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 공군우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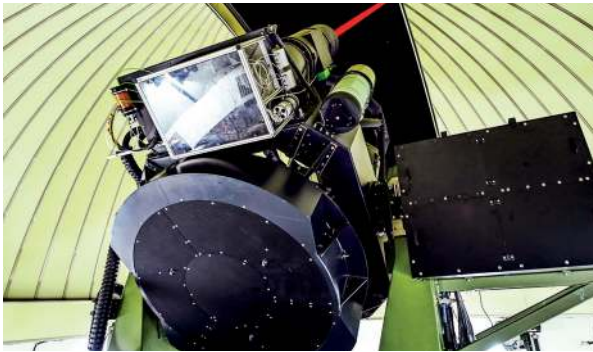


발전 구상인 에어포스 퀀텀 5.0을 구체화해 공군의 미래전력과 미래작전 수행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군 미래정책 추진 전담조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기획센터는 공군 미래전 수행개념의 핵심전력인 유·무인 복합체계 정책화 추진, 합동전영역작전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신규 전력 소요창출,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부대 및 병영복지체계 구축 등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공군의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센터의 구호에 걸맞게 공군의 Think-Tank로 활약할 미래기획센터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 전력화

1월 5일(수),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Elector Optical Satellite surveillance System, EOSS) 전력화 기념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의 첩보 활동을 감시하고,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해 정보를 획득하는 우주 전력입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저궤도 인공위성과 우주물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전력화함으로써 제한적인 우주영역인식 능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우주작전 수행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제, 탐색, 식별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는 앞으로도 우주물체에 대한 궤도와 영상정보를 분석해 우리 군의 주요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공군은 우주안보와 우주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 우주 전담 정책부서를 신설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주 정책과 전력, 조직, 인력 등 우주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우주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는 우주영역인식 능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용시험 평가기간을 거쳐 올해 전력화를 달성했습니다. 공군은 우주감시전력을 전군 최초로

KF-21 최초 시험비행 성공

7월 19일(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최초비행 준비검토회의 등을 거쳐 안전하게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인데요. KF-21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된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마하 1.8(약 2,200km/h)의 비행속도와 7.7t의 무장탑재 능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능동전자주사배열(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AESA) 레이더, 적외선탄색추적장치(Infra-Red Search and Track) 등 KF-21의 항공전자장비 4개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해 탑재했습니다.

KF-21의 조종간을 처음으로 당긴 이는 공군 제52시험평가전대 안준현 중령(진)이었습니다. 최초 시험비행 전, 『공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KF-21 첫 비행에 대한 설렘보다 책임감이 앞선다.”라고 밝힌 바 있었던 안 중령(진)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착하게 최초 시험비행을 마쳤습니다. KF-21의 최초 시험비행 성공으로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방위사업청은 이후 비행시험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F-21은 2026년까지 2,000여 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거쳐 체계개발이 완료되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되어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피치블랙 (Pitch Black) 실시

8월 29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 호주 다윈(Darwin), 앰벌리(Amberley) 기지에서 실시된 대규모 다국적 연합훈련 2022 피치블랙(Pitch Black)에 우리 공군이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피치블랙은 호주 공군이 역내 안보와 우방국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격년으로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이번 훈련에는 호주·미국·영국·독일 등 10개국 공군이 동참해 각국의 공군력을 과시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제의에 따라 2010년부터 5회에 걸쳐 참관만 해오던 피치블랙에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 공군은 다국적 공군과의 연합작전 능력을 신장하고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KF-16 전투기 6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와 13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공군 역사상 최초로 우리 공군의 KC-330이 전투기 해외 전개(Ferry)간 공중급유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편, 호주 임무 공역에서도 급유작전을 수행하며 우리 공군 단독 전력만으로도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훈련 참가 전부터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장시간 전개에 대비해 실제 전개 시간 동안 시뮬레이터 탑승훈련과 체공 비행 훈련을 하는 한편, 호주 본토에서도 일주일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투철한 대비와 뛰어난 실력으로 피치블랙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군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한 것은 물론,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호주 공군 F-35A 전투기,
KC-30A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KF-16



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 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와
미 공군 B-1B, F-16

미 7공군사령부와 함께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 항공작전 수행태세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공격기, U-2 고고도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가 참가했으며 호주 공군 KC-30A 공중급유기도 1대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군 F-35B 전투기가 최초로 국내기지에 직접 전개해 훈련에 참가했으며, B-1B '랜서'도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한미 공군 모두는 비질런트 스톰 기간 동안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주요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 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작전 능력을 신장시켰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하늘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각 부대들은 한미연합 기지방호 및 대테러훈련, 전시 군수지속지원능력 검증훈련, 최대무장장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등을 실시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은 앞으로도 한미 연합 공군의 전략적·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 재확인!

블랙이글스 해외에어쇼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친 블랙이글스가
태극을 그리고 있다.

올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 공군을 알린 이들은 다름 아닌 블랙이글스(Black Eagles)였습니다. 블랙이글스는 7월 9일(토)부터 8월 20일(토)까지 영국에서 시작해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며 군사외교와 방산 협력을 위한 에어쇼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정의 첫 시작은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를 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분해된 항공기는 민간 화물기를 통해 영국으로 운송됐고, 영국 현지에서 재조립과 시험비행을 거친 T-50B는 사우스포트(Southport)·리아트(Royal International Air Tattoo, RIAT)·판보로(Farnborough) 에어쇼에 참가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고의 국제 에어쇼 리아트에서 지난 2012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하며 여전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특수비행팀 레드애로우즈(The Red Arrows)와 우정비행을 선보이며 한-영 공군의 끈끈한 우정도 보여줬습니다.

이후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릭(Orlik)과 함께,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공군 특수비행팀 실버스타즈(Silver Stars)와 함께 우정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치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과 블랙이

글스의 화려한 특수비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블랙이글스는 또 다른 국산 항공기인 FA-50을 운용하는 필리핀 공군과 함께 비행하며 군사교류 및 방산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 사절단, 블랙이글스가 내년에는 또 어떤 에어쇼에 참가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모총장 군사외교활동

정상화 참모총장은 7월 13일(수)부터 14일(목)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항공우주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다.

정상화 참모총장은 7월 10일(일)부터 16일(토)까지 태국과 영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방협력, 우주분야 국제협력 및 국산 무기체계 방산수출 증진을 위한 군사외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첫 군사외교활동으로, 국제정세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방국들과 국방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국 공군사령관 나파뎃 투빠데미아(Napadej Dhupatemiya) 대장과의 양자대담에서 정상화 참모총장은 6·25전쟁 당시 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해 언급하며, 양국 군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협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T-50TH를 운용하는 태국 공군 제4비행단을 방문해 항공기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항공기 가동률 향상을 위한 군수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런던에서는 ‘최첨단 항공우주력의 지속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항공우주 지휘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60여 개국 항공우주 지휘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화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국 항공우주 지휘관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블랙이글스가 활약하고 있던 리아트 행사를 찾은 정상화 참모총장은 美 공군참모총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과 美 우주군참모총장 존 레이먼드(John W. Raymond), 美 태평양공군사령관 케네스 윌즈바흐(Kenneth Wilsbach)를 각각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양국의 확고한 방어역량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국방·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밖에도 영국·호주·독일 공군참모총장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참모총장, 필리핀 공

군사령관과도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과 우주협력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군사외교활동에서 얻은 성과들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이자, 항공우주력 증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공군 서체 개발 및 배포

1) 획의 시작이나 끝부분에 있는 작은 돌출선으로 서체의 특이점과 가독성에 영향을 준다.

공군이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공군은 1월 10일(월), 공군의 정체성을 표현한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를 개발하고 이를 무료 배포했습니다. 공군이 지향하는 강하고 바른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독자적인 서체를 개발한 것인데요.

공군은 전용서체 전문 기업 ‘투게더그룹’과 함께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협업해 기존 공군 CI(Corporate Identity)의 곧은 이미지라는 정통성은 유지하면서도 상승 이미지와 전투기 꼬리날개 이미지를 본뜬 디자인으로 하늘을 넘어 우주로 도약하고자 하는 공군의 의지와 공군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날개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바른공군체’는 가독성과 범용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바른공군체’는 강인하며 올곧은 공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한편, 전투기 노즈 부분의 곡선 형태를 살린 자음과 모음 간 이음새가 특징입니다. ‘강한공군체’는 시각적으로 집중하기 쉬운 서체로, 서체의 두꺼운 획에 항공기 꼬리날개 이미지를 형상화한 세리프(Serif)¹⁾를 적용해 견고하면서도 민첩한 공군의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서체와 더불어 지난 2021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공군 픽토그램’을 특수문자로 포함해 누구나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른공군체’와 ‘강한공군체’는 공군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못하셨다면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rokaf.airforce.mil.kr) 또는 블로그 공감(afplay.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공군 서체를 적용한 다양한 예시 사진

호국보훈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음악회 개최

서로 마주 보며 노래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악대원



공군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정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군 가족, 장병 및 주한 미군 등 1,100여 명이 참석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군악 정기음악회를 3년 만에 재개한 것이었기에 그 관심이 컸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공군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숭고한 호국정신과 영공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된 음악회에서 공군군악대와 미8군군악대가 연합 군악대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미 연합 군악대는 함께 화음을 맞추며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한층 더 돈독히 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음악회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 건설’이라는 공군의 의지가 담긴 관악곡이자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려는 인류의 소망을 주제로 만들어진 ‘Space & Beyond’를 시작으로 6·25전쟁 참전국 22개국의 국기를 이용한 공군의장대 기수단의 퍼포먼스가 가미된 ‘Here’s to the Heroes’, 전통무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모듬북 ‘승전고’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공군이 올해에는 과연 어떤 공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사천에어쇼 개최

화려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2022 사천에어쇼



공군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에어쇼, 사천에어쇼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2 사천에어쇼는 “사천비상(泗川飛翔)-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10월 20일(목)부터 23일(일)까지 사천비행장, 사천종합운동장 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공군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참여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사천에어쇼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2022 사천에어쇼에서 공군은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특별한 체험과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와 F-35A, KC-330 등 30여 대의 축하비행을 시작으로 약 50여 대의 유·무인 항공기 지상전시, 수송기 체험비행, 항공우주전시관 및 체험장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사천에어쇼를 방문한 관람객 총 40만여 명의 시선을 빼앗았습니다. AF

이밖에도 공군은 조국 하늘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한 해를 채웠습니다.
2022년 한 해도 공군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가올 2023년에도 공군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공군'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울진 지역 산불진화작전 지원을 위해
출동하고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장병들

F-35A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 엘리펀트 워크: 다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서로의 기지로 전개하여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쌍매훈련

굳건한 한미동맹,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다

지난 10월 31일(월)부터 11월 5일(토)까지 한미 공군이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훈련 마지막 날에는 B-1B ‘랜서’가 한반도로 5년 만에 전개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항공작전능력을 보여준 한미 공군의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죠!

최초로 국내기지에 전개한 미 F-35B 전투기(좌)와 호주 KC-30A 공중급유기(우) 등 총 240여 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공격편대군, 방어제공, 긴급항공차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우리 공군 KF-16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다.



미 B-1B '랜서' 2대가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4대, 주한미군 F-16 4대와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





B-1B

길이 44.5m

폭 42m

높이 10.4m

최대속도 마하 1.2 (약 1,470km/h)

최대 항속거리 12,000km

탑승인원 4명

주요 탑재무기

2,000파운드급 MK-84 폭탄 24발,
500파운드급 MK-82 폭탄 84발,
2,000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
내부 34t, 외부 27t, 총 60여 t 탑재



‘희망’이라는 절대 무기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멀리 지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발과 소리는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이태원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던 11월 초 경북 봉화 아연 광산에서 희소식이 전해졌다. 수직 갱도가 막혀 지하 190m 지점에 고립됐던 두 명의 광부가 극적으로 구조된 것이다. 그들의 구조와 생환은 희망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든다.

수백 톤의 토사가 갱도로 쏟아지며 그들이 작업하던 곳은 순식간에 암흑 세상으로 변했다. 지상으로 가는 통로는 막혔고 전기도 끊겼다. 화약과 팽이 등으로 막힌 곳을 뚫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생존 전략을 바꿨다. 매몰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공기와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 작업 도중 마시려고 가져온 커피 믹스는 비상식량이 됐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비닐은 추위를 막는 천막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나무 조각을 모아 모닥불을 피우며 체온을 유지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221시간이나 버틸 수 있게 해 준 것은 지상에서 희미하게 들려

오는 폭발음과 천공기 소리였다.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지레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랐다. 구조 전문가들도 “고립된 광부들이 들었다는 발과 소리 덕에 생존 의지가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끊기는 고립이다. 무너진 갱도에 갇힌 광부들이 느꼈을 공포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누구나 가끔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도 단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었던 2020년 여름 내게도 갑자기 공황장애가 덮쳤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수 없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몸살이나 기침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 고립감과 소외감, 피로감, 무기력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심하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게 된다. 한 달 이상 증상이 없

어지지 않아 결국 정신과 병원을 찾았다. 두 달가량 약을 먹었더니 조금 나아졌다. 약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불안증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은 나와 연결된 사람들 덕분이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의 위로와 지원은 큰 위로가 됐고 치유의 힘으로 작용했다. 그들과 이어졌다는 연대감에 힘입어 아주 잠깐 마음의 지하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대하소설 『객주』로 유명한 김주영 작가가 2017년 발간한 『뜻밖의 생』이라는 소설이 있다.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주인공은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안개 낀 해안 동네에서 노숙자와 매춘부가 만나 힘겨웠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소설의 큰 뼈대다. 주인공 이름은 호구다. 박호구. 그의 부친 박무도는 도박판을 떠돌다가 비명횡사한다. 엄마는 무당에 빠져 있는 정신병자다. 무당을 신처럼 모시며 아들 호구를 방치한다. 호구는 부모의 보호는커녕 천덕꾸러기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옆집 젊은 여인 단심이네만 그를 보살펴 준다. 단심은 음악에 미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기다리며 병든 시아버지를 수발하며 살고 있는 가여운 여인이다. 호구의 안식처였던 그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편을 찾아 떠난다. 단심이네가 떠나고 호구는 다시 외톨이 신세가 된다. 그는 굶판에 불붙은 쥐를 풀어놓는 등 말썽을 일으켜 엄마와 갈등을 빚는다. 사실 호구의 일탈 행위는 무당에 미친 엄마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려놓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호구는 엄마와 끝내

화해하지 못한다. 호구는 고향 마을을 떠났고 그의 앞에는 파란만장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끈질긴 생명력은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였다. 노인이 된 노숙자 호구와 매춘부 출신 여인은 대화를 나누며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강한 연대감을 느낀다. 작가는 기적과도 같은 두 사람의 만남을 ‘뜻밖의 생’이라는 말로 축하했다.

소설을 타고난 뒤 작가가 남긴 짧은 후기는 희망이 무엇인지 암시한다. “방법은 고난보다 많다. 척박한 바위산 기슭에 십 년 동안 하루에 몇 그루씩 나무를 심고 있는 중국 농촌의 한 농부가 한 말이다. 그는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심각한 장애인이었다.”

13세기에 살았던 페르시아 시인 사아디도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우화를 전한다. 제목은 ‘딱 한 번’. “딱 한 번 나는 나의 불운을 원망하며 불평한 적이 있다. 당시 너무나도 가난하여 신발을 마련할 수 없었기에 아린 맨발로 투덜거리고 쿠파 신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거기서 나는 발 없는 사람을 보았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도 많은 일이 일어났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아픈 추억도 많았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 좌절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연대’와 ‘희망’이라는 절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AF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고려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92년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90기로 입관해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영어 교관으로 근무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산업부와 정치부, 국제부 기자, 중소기업부 부장을 거쳐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잘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 『우화경영』, 『춘추전국의 전략가들』, 『새판을 짜다』, 『인문학, 주식시장을 이기다』 등이 있다.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MiG 1.44 실험전투기

러시아 전투기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미그 설계국과 수호이 설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4세대 전투기인 MiG-29와 Su-27을 완성한 후 미그와 수호이 설계국은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실험전투기 설계에 착수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미그 MiG 1.44와 수호이 Su-47 실험전투기이다.

2002년 4월, 러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이끌 제작사로 미그가 아닌 수호이를 선정하여 공식 발표했다. 공식 발표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수호이가 주도하지만 미그도 함께 전



모스크바 에어쇼 2015에 전시된 MiG 1.44

투기 개발과정에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는 미그와 수호이의 MiG 1.44, Su-47 실험전투기로 실증한 신기술을 토대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MiG 1.44와 Su-47 전투기를 살펴봐야 한다.

MiG 1.44는 쌍발 단좌 형식의 대형 다목적 전투기이다. 주익은 중익배치이고, 쌍수직미익에 선미익, 즉 카나드를 채용하고 있다. 주익 형태는 델타익에 가까우며, 동체하부의 안정익(Ventral Fin)도 갖추고 있다. 공기흡입구는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연상시키듯 동체 하부에 위치한다. 흡입구 덕트의 형상은 'S'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엔진의 팬블레이드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레이더파를 대량으로 반사하는 팬블레이드를 숨길 수 있어 적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인 레이더단면적을 줄여 스텔스 성능에 도움을 준다.

MiG 1.44의 스텔스 설계는 비단 공기흡입구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다. MiG 1.44는 동체 내에 무기고를 갖추고 있어 기체 외부 무장장착에 의한 레이더파 반사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기체 각 부위에 복합재와 레이더흡수재를 다량으로 적용하여 스텔스 성능을 높였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MiG 1.44의 전체적인 스텔스 성능은 경쟁기종인

Su-47 베르크트보다 우수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엔진은 Su-47과 마찬가지로 AL-41F 추력편향 엔진을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Su-27 플랭커 전투기 계열에서 운용되어 성능이 검증된 AL-31 엔진을 탑재했다. 언론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MiG 1.44의 레이더는 N014가 사용될 계획이었다. N014는 합성개구레이더 모드를 갖추고 있어 향상된 공대지 교전이 가능하고, 20개의 목표물의 동시추적, 그중 6개 표적에 대한 동시교전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으며, 무장능력은 실험 전투기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체 내부 무기고에 R-73(AA-11)과 R-77(AA-12)을 혼용하여 높은 수준의 공대공 전투능력을 갖출 계획이었다.

1999년 3월 최초비행한 MiG 1.44는 비록 기술 실증을 목적으로 한 실험전투기이지만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가 어떠한 성능을 갖추고 탄생하게 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전투기라고 의미를 둘 수 있겠다.

Su-47 실험전투기

Su-47 베르크트(Berkut) 전투기는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미국 전투기들의 독주를 견제하고자 러시아의 수호이 설계국이 야심차게 설계한 실험 전투기이다.

1997년 9월에 처녀비행을 마친 Su-47은 개발 초기에 실험기 명칭인 S-37로 불려왔지만, 2002년에 명칭이 변경되어 Su-47로 최종 결정되었다. 실험 전투기인 Su-47은 미국의 'X' 시리즈와 같은 단지 연구용은 아니고, 기내에 고정무장과 무장탑재 능력을 갖춘 실전 모델이다. 단지 실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러시아 당국이 본격적인 대량생산을 지시한다면 곧바로 생산과 배치가 가능하도록 연구했던 것이다.



기동성을 위해 전진익으로 설계된 Su-47

미국의 F-22가 ATF(Advanced Tactical Fighter) 계획으로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듯이 러시아의 차기 전투기 계획은 1980년대부터 I-90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I-90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보다 진보적인 개념의 PAK FA(Perspektivny Aviatsionny Kompleks Frontovoy Aviatsii: 미래형 다목적전투기)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PAK FA의 주계약자는 2002년에 수호이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Su-47에 적용된 설계 사상은 Su-57에도 이어진다. 단, Su-47의 특징인 전진익은 폐지되었다.

Su-47의 기동성은 매우 뛰어난 편인데, 이것은 Su-27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사용된 항공역학적 기술이 Su-47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Su-47의 캐노피와 랜딩기어, 수직미익 등 일부 구성품은 Su-27의 것을 채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Su-37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음속에서의 기동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전진익 특유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재래식 형태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카나드, 주익, 수평미익 등 3개의 날개가 모두 양력을 발생시키는 공력 설계와 전자식 비행제어의 결합으로 Su-47은 높은 받음각 성능과 우수한 선회율 특성을 보였다.

Su-47의 외관상 가장 큰 특징은 전진익이다. 전진익은 같은 면적의 후퇴익에 비해 높은 양향비, 선회율, 고받음각에서의 안정성, 단거리 이착륙 성능 등이 유리하다. 그리고 낮은 실속속도와 우수한 스핀 특성, 후퇴익에서 주로 발생하는 익단실속이 없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비행제어와 소재 측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날개형상이므로 아직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5세대 전투기답게 Su-47은 본격적인 스텔스 개념이 적용되었다. 무장의 내부탑재와 더불어 전진익 고유의 스텔스성이 Su-47의 스텔스 성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공기흡입구의 팬블레이드가 정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레이더흡수도료를 외피에 도포하는 등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다.

Su-47 전투기는 러시아가 1980년대부터 시도한 I-90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I-90 프로그램은 PAK FA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국 Su-47은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Su-47은 MiG 1.44와 더불어 러시아 전투기가 5세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연구된 과도기적인 전투기들이라고 의미를 둘 수 있겠다.

Su-57 펠런(Felon) 전투기

Su-57은 러시아가 미국의 F-22, F-35에 대응하고자 추진했던 I-21 PAK FA 사업의 결과물이다. PAK FA 사업은 I-90에 이어 1998년에 시작된 TTZ(Tactical Technical Assessment)에서 비롯되었으며, 신형 전투기 300대가 필요하다는 러시아 공군의 2001년 발표에 따라 2004년 12월에 계획이 확정되었다.



러시아 5세대 전투기 Su-57

2010년 1월, 시제기(T-50)의 첫 비행에 성공한 Su-57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동체 내에 무기고를 설치하였고, 초음속 순항 성능을 갖추었다. Su-57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요구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최대속도를 포함한 기동성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형상 측면에서 Su-57은 대형화된 LERX(Leading Edge Root Extension: 앞전뿌리연장) 날개를 적용했고, 엔진 간격을 벌리고 일체화된 날개-동체 설계 방식을 적용하여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 LERX는 슬랫과 유사하게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직미익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움직이는 방식을 채택했고, 기존 전투기보다 소형화했다. 일반적인 스텔스기와 마찬가지로 주익, 미익의 앞전, 뒷전 등의 후퇴각을 통일했다.

엔진은 타입 30을 장착하려 했지만,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AL-41F1 엔진을 초도 양산형에 먼저 적용했다. AL-41F1 엔진은 최대 추력은 약 33,000파운드급이고, 타입 30 엔진은 약 40,000파운드 F-22의 엔진보다 추력이 높다. 엔진 노즐에는 기동성 향상을 위해 3D 추력편향장치가 설계되어 있다.

센서로는 기수에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적외선탐색추적장비도 함께 운용한다. 그리고 LERX에 컨포멀 형식의 L-밴드 대역의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추가했다. 기수 측면에 능동전자주사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는 Su-57이 세계 최초이다. 원래 F-22 전투기도 기수 측면에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 예비공간을 설계에 반영했지만 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탑재되지는 않았다. Su-57은 적에게 시계 외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한 후 기수 측면의 레이더를 통해 기수를 적의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도 발사한 미사일의 데이터링크 최신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Su-57은 미사일의 사거리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면서도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효율적인 전술(F-pole) 구사가 가능하다.



조종석 뒤 흰색 원이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 위치이다.

생존장비 측면에서 Su-57은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를 세계 최초로 탑재한 전투기이다. 지향성적외선방해장비는 접근하는 적외선유도미사일에 대해 적외선 레이저를 조사하여 미사일 탐색기를 기만하는 역할을 한다. 미사일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 기체 전방위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상황인식 및 미사일 정보가 가능한 101KS-V 적외선 센서도 탑재하고 있다.

Su-57의 내부 무기고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전용 무기고가 주익 안쪽 하부에 총 2곳이 있고, 동체 중앙 하부에 주 무기고가 위치한다. 주 무기고에는 각종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공대함 무장이 탑재된다.

2020년대에 배치된 전투기인만큼 Su-57은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동되는 무인기는 S-70 오크호트닉이 유력하다.

Su-57은 공식적으로 2020년 12월에 처음 전력화되었다. 2020년대 말까지 러시아는 76대의 Su-57을 획득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계획대로 양산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는 비용 대 효과 측면을 고려하여 Su-57과 더불어 Su-27 계열 전투기를 상당기간 병행하여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 사이로 보이는 Su-57 내부무기고

LTS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는 수호이가 개발 중인 신형 5세대 전투기이다. 전투기는 성능과 최대이륙중량을 고려하여 하이급과 로우급으로 구분한다. 미국은 하이급 전투기로 F-15, F-22를 개발한 후 로우급인 F-16, F-35 전투기를 각각 개발했다. 러시아도 하이급으로는 Su-27 계열을 운용하고, 로우급으로 MiG-29를 운용했다. 향후 러시아는 5세대 하이급 전투기로 Su-57을 운용할 계획이지만 로우급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체크메이트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러시아의 로우급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크메이트는 2021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실물크기 모형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개발 사업은 러시아의 소요 없이 아랍에미리트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크메이트의 형상은 전형적인 스텔스 전투기 형상이다. 레이더 탐지를 줄이기 위해 수직미익과 수평미익은 V-테일 형식으로 통합되었고, 기체와 주익, 미익의 외형선도 정렬되었다. 공기흡입구는 미국의 X-32와 유사하게 기수 아래에 위치한다. 무장은 역시 동체 내에 탑재된다. 엔진은 Su-57에 장착되는 타입 30 엔진이 단발로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체크메이트는 러시아의 소요 없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호이가 자체 자금 및 외국 자본으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래는 불투명하다. 다만 개발에 성공할 경우 Su-57보다 비용 대 효과가 우수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출시장에서 KF-21 등 신형 기종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AF**



두바이 에어쇼 2021에 전시된 체크메이트



기수 아래에 위치한 체크메이트의 공기흡입구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좋은 공군

우리는
자랑스러운
병영문화와
전통을 지켜
'좋은 공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예도(銳刀) - 기본이 충실한 조선의 검법



글쓴이 소개 『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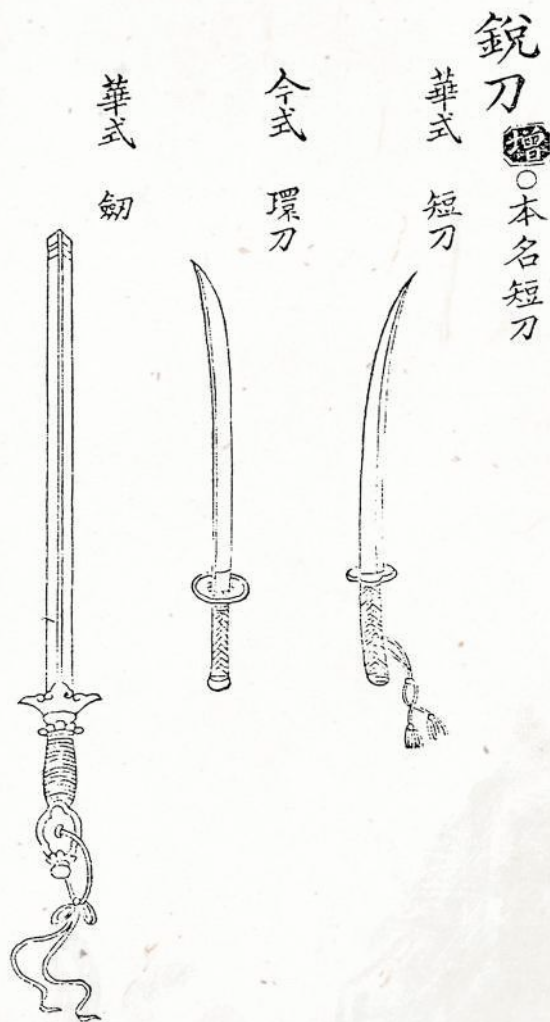
세상사 모든 일은 기본이 중요하다. 걸음마도 못 댄 아기가 계단을 뛰어오를 수 없듯이, 부럽고 욕심난다고 하여 일을 서두르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무예 수련도 마찬가지다. 차분하게 자신의 몸을 들여다보고 하나씩 채워나가야 부상 없이 오래 수련할 수 있다.

무예를 익힐 때의 기본 순서는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검법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신보수검(身步手劍)’이다. 먼저, ‘신(身)’은 몸으로 하는 맨손 무예로, 자신의 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육체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다. 무예를 익힐 수 있도록 몸을 부드럽게 풀어내야 부상 없이 훈련을 지속할 수 있고, 자신의 뼈와 근육의 한계를 이해해야 체력을 키워 낼 수 있다.

그다음은 ‘보(步)’라는 것으로 걷는 법과 다리를 사용하는 법을 의미한다. 그냥 걸어다니는 걸음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특히 보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기둥인 척추와 다리의 연결 부위인 골반의 조화로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예를 할 때, 중심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대와 대적하려면 발가락 끝에서부터 대퇴부까지의 힘을 얼마나 축적시켜 발산하느냐에 달려있다. 소위 ‘단전’이라고 부르는 하복부 힘을 이용해야만 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힘쓰기가 가능하다.

또한 걸음을 공격적으로 풀어내어 다양한 기본 발차기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완전히 몸을 낮춰 하단을 쓸어내는 발차기나 공중으로 도약하여 체중을 실어 공격하는 다양한 발차기까지도 ‘보(步)’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발차기의 경우도 연속적인 보법 속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의 양날 검 방식 및 짧은 칼인 단도(短刀)와 조선에서 사용하던 환도(環刀)를 비교한 『무예도보통지』

‘수(手)’는 손아귀의 힘을 비롯하여 어깨 및 견갑골까지 이어지는 팔을 활용한 전체적인 힘을 키워내는 수련이다. 단순히 무기를 들지 않고 맨주먹을 쥐고 상대를 공격하는 권법의 권지르기를 기본으로 한다. 새끼손가락부터 이어지는 하삼지(下三指)를 단단히 말아 쥐며 그 위에 검지로 힘을 더하고, 마지막에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덮어 무쇠같은 돌주먹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 주먹을 활용할 때에도 주먹에만 힘을 주고 어깨는 힘을 빼 팔을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치 큰 망치나 도끼질을 할 때 어깨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자체의 무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연하게 내려치는 움직임의 연상하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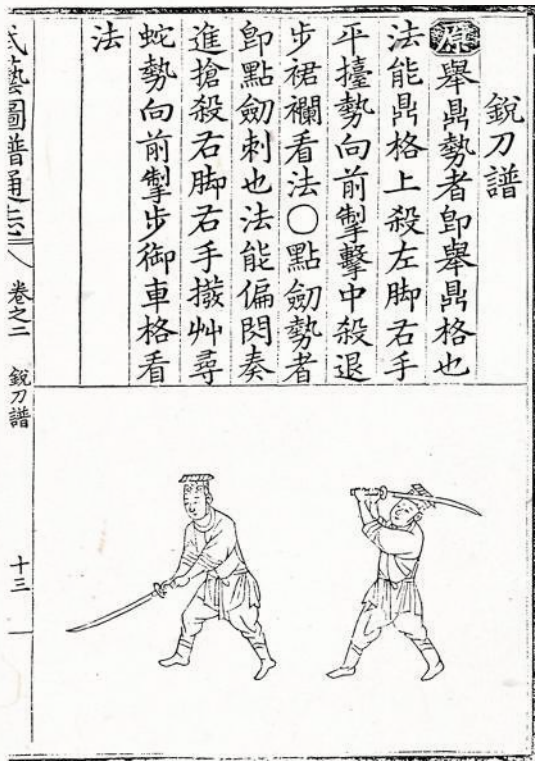


조선의 환도 모습

마지막으로 ‘검(劔)’은 손에 무기를 들고 움직이는 무기술 전반을 의미한다. 손에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움직일 때 단순히 손아귀나 팔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연결된 등 근육 전체를 활용하여 힘을 끌어 쓰는 것이다. 여기에 허리의 힘과 다리의 힘을 조화롭게 무기에 전달해야만 안정적인 무기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

무예 수련에서 ‘칼날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칼날의 날카로움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좋은 대장장이를 만나 날카로운 칼을 얻거나, 스스로 숫돌에 수많은 연마작업을 해서 날이 번쩍번쩍 선 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연스레 움직이며 무예를 펼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에 상대방과 목숨을 놓고 겨루는 전투의 상황에서 그 날카로움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적을 향해 휘두른 칼이 아군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휘두른 칼에 맞아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보수검(身步手劔) 즉, 몸을 만들어 걸음을 견고·손을 사용하여 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익혀나가야 몸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예를 익혀나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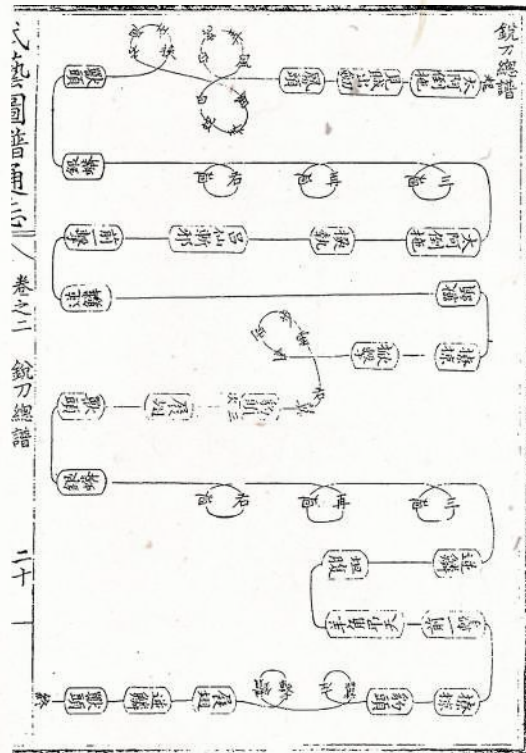


예도24세 중 첫 번째 자세인 거정세(舉鼎勢)와 점검세(點劒勢)에 대한 설명과 그림

대한민국 공군도 조종사를 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며 주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몸과 체력이다. 신체검사의 경우도 육군과 해군보다도 더 엄격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미래의 전투조종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기 때문인 것이다. 기본체력과 기초비행이론 교육 후에는 조종사 입문 과정에 KT-100, 기본과정에 KT-1, 고등과정에 T-50 기체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각각의 기본 훈련기들을 마치 '신보수검'의 원칙처럼 비행조종 단계에 맞춰 하나씩 순서대로 익혀나가는 방식이다. 특히 마지막 T-50은 무기체제와 연동하여 바로 전투기 훈련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환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고급 기종이므로 최종적인 전투기 적응단계로 봐도 좋을 것이다.

조선후기 무에서인 『무예도보통지』에 가장 기본적인 검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검법이 바로 '예도(銳刀)'이다. 예도(銳刀)는 모원의(茅元儀)가 쓴 중국의 병서인 『무비지(武備志)』에 실린 것을 『무예도보통지』에 다시 수록한 것



조선군이 익혔던 화려한 검술의 연속 자세를 정리한 예도총보

이다. 그런데 의미있는 사실은 모원의가 이 병서를 만들 때, '호사자득지조선기세법(好事者得之朝鮮其勢法)'라고 하여 '조선에서 그 세법을 얻었다'라고 기록하였다. 심지어 조선의 칼 쓰는 법이라고 하여 '조선세법(朝鮮勢法)'이라는 이칭을 함께 적어 놓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세법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은 눈으로 간파하는 안법(眼法), 칼로 쳐서 공격하는 격법(擊法) 다섯 가지, 칼을 뽑아서 베는 기법인 세법(洗法) 세 가지, 칼로 찌르는 자법(刺法) 다섯 가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거기에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격법(格法) 세 가지를 더하여 설명하였다.

예도는 기본적으로 24가지의 기본 칼 쓰는 법이 담겨 있는데, 그때 당시 조선군이 수련했던 검 기법 4가지를 추가하여 모두 28세로 정리하였다. 거기에 조선군들이 연속적으로 익혔던 자세의 경우는 '예도총보(銳刀總譜)'에 별도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엄밀히 보자면, 예도는 독특하게 검의 기본기 수련법인 짧은 예도24세(조선세법)와 조선



동래부사가 초량왜관에 온 일본 사신을 맞이하여 의례를 지내는 장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린 동래부사접왜사도(東萊府使接倭使圖) 중 일부이다. 특히 일본 관리들의 칼 두 개를 허리춤에 찬 모습과 조선 관리의 환도 패용 방식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군들이 긴 검법의 형태로 익힌 예도총보의 두 가지를 함께 수록한 것이다.

그중 몇 가지 기본자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도의 세 번째 자세인 '좌익세(左翼勢)'는 왼편의 나래(날개)로 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오른편 어깨 위에 칼을 올려놓았다가, 칼을 오른편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돌아 올리듯 걸쳐 올려쳐 수평까지 이르면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가 된다.

이후 그 상태에서 체보로 베듯이 앞으로 나아가며 칼날을 뒤집어 찌르는 '역린자(逆鱗刺)'를 한다. 이렇게 첫 자세에서 직부송서세로 아래서 위로 걸쳐 치고, 바로 목을 향해 앞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이 좌익세다.

좌익세와 짝을 이룬 예도의 열다섯 번째 자세는 '우익세(右翼勢)'이다. 오른편 나래로 치는 것을 말하는데, 자신의 왼편 어깨 위에 칼을 올려놓았다가 앞을 향해 수평으로 쭉 뻗어 내는 '안자세(雁字勢)'를 한다. 이후 바로 앞으로 베듯이 걸어 들어가 허리를 친다. 마치 어깨 위에 망치를 올려놓았다가 그대로 앞으로 내려치고, 이어 수평으로 치는 모습이다.

이렇게 예도24세는 단 두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본적인 칼 쓰임법인 것이다. 예도총보에 실린 조선군이 기존에 익혔던 예도는 상당히 의장적인 화려한 검술과 대비된다.

대표적으로 예도총보에는 네 가지의 자세가 더해졌는데, 왼손으로 칼 허리를 잡고 오른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고함을 지르는 '태아도타세(太阿倒拖勢)', 오른손으로 칼을 머리 위쪽으로 자신의 키만큼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받는 '여선참사세(呂仙斬蛇勢)', 무릎을 꿇고 제자리에 앉아 오른손 손가락에 칼날을 끼웠다가 마치 헬리콥터 날개가 돌 듯 칼날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는 '양각적천세(羊角弋天勢)', 몸을 회전시키며 칼날을 머리 위로 돌리듯 연속으로 세 번 휘돌리는 '금강보운세(金剛步雲勢)' 등이다.

이러한 독특한 칼 쓰임새는 단순히 치고 베는 검술을 수련하는 의미를 넘어서 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식 혹은 의장적인 검법임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를 보면, 고만흥(高萬興)의 아버지 후점(後漸)이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술이 매우 기괴하여 조선 군영에 보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도총보는 태아도타세를 시작으로 하여 수두세로 마무리하여 전체 50개의 동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도24세와 예도총보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칼 수련과 가장 화려한 검법 수련을 대비하여 정리한 것처럼 보인다. 기본기가 단단하면 아무리 어려운 검법도 그 길만 외우면 쉽게 몸으로 풀어 낼 수 있다. 현대전에서도 기본기를 충실히 훈련한 장병들이 더 고도화되고 복잡한 신(新)무기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 AF



예도를 수련 중인 필자의 모습



어깨에 태극기를 달 자격

1,600여 명의 정예 우주공군인이 탄생한 병841기 수료식





제60수송전대, 전군 항공수송 지원능력 강화 다짐

제29회 전군 항공수송 지원능력 경연대회

* 학술평가, 공수화물 적·하역, 화물 의장 등 다양한 항공수송 지원능력 분야를 평가하는 본 경연대회는 항공수송 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합동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군으로 확대 개최되고 있다. 특히, 11월 1일(화)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가 최초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정상화 참모총장은 11월 8일(화), 공군호텔에서 '미래 우주 작전 수행능력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공우주법 분야는 공중은 물론이고 우주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와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공군의 미래 우주작전 수행능력 구축을 위해 법률적·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만·관·군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뢰와 존중의 병영문화 토론회



정상화 참모총장은 11월 10일(목),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공군 주임원사단 회의를 계기로 열린 '신뢰와 존중의 병영문화 토론회'에 참석하여 각급 부대에서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임원사들을 격려하고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모총장은 “부대관리와 병영생활에 대한 지휘관의 특별참모인 주임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세대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와 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공군’을 건설하는데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조종사 지휘관 시간



정상화 참모총장은 11월 22일(화), 공군본부에서 '22-2차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한 신임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지휘관 시간을 주관했다. 참모총장은 신임조종사들에게 “공군의 조종사는 적은 인원이지만 국가방위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조종사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많은 지원요원들이 수고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사령부

제149기 학사사관후보생 야외종합훈련

교육사령부는 11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제149기 학사사관후보생 야외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후보생들은 기지방호, 재난통제 훈련과 더불어 산악 행군으로 이뤄진 야외종합훈련을 이수하며 정예 우주공군 장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공중전투사령부

응급처치 교육

공중전투사령부는 11월 11일(금),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인명 사고에 대비하고 군인으로서 국민과 주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은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석자들은 실전적인 심폐소생술 절차를 숙달했다.



제1전투비행단

어린이집 화재대응훈련 및 교육

제1전투비행단은 11월 8일(화), 부대 내 어린이집을 찾아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및 화재 시 대응절차를 교육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인근마을 대민지원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10월 31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부대 공중투하훈련장 인근마을을 찾아 단감 수확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단감 수확철에 맞춰 일손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제10전투비행단

군 차량 체인장착 및 정비기술 경연대회

제10전투비행단 수송대대는 11월 17일(목), 동절기 군 차량 눈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체인장착 훈련 및 차량 정비사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2022년 군 차량 체인장착 및 정비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제53특수비행전대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 추모비행

제53특수비행전대는 11월 11일(금),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된 TURN TOWARD BUSAN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서 추모비행을 실시했다.

* TURN TOWARD BUSAN: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을 올리는 행사

한 달, 한 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벌써 12월! 어찌자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시간은 어디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입장에 따라 감각은 참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 년을 돌아보고 새해엔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는 데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해 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진화 인류학자,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가 함께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몇 년 전에 낸 책 『행복의 기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고요. 어째서일까요? 수십만 년 전의 인류에겐 아직 문명이 없었고 맹수에 대적하기엔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도 없고 맹수 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었죠. 생존을 위해 인간들은 한데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의 공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또 오늘날처럼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 세월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굶주렸어요. 따라서 여럿이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생존이 해결된 상태인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류는 생존과 진화에 유리한 행위를 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장면이 행복의 정수가 되는 거죠. 이달에 여러분께 추천하는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의 저자에 의하면, 수십만 년 전 지구엔 호모 사피엔스뿐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 등 여러 인류 종이 있었답니다. 그 중 호모 사피엔스가 최종 살아남아 현재의 인간, 우리로 진화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인류 종에 비해 결코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우세 종이 되었을까요? 저자들은 우리 종이 가진 ‘다정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육체로 적을 많이 정복해서가 아니라 다정하고 협력적이었던 덕에 승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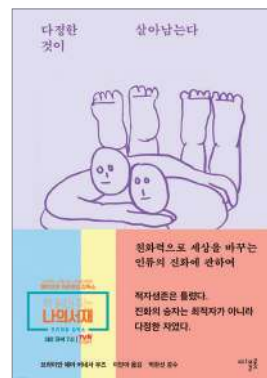
회사원 등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업무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온다고요. 생각도 욕망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데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며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선배 한 분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고요.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싫은 사람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지혜가 들어있다 느꼈습니다.

다시 이달의 추천 책으로 돌아올까요? 저는 앞에서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언급했지만 세상은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혐오가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언급, 반응이 넘쳐납니다. 저자들도 이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이 책을 쓴 듯 합니다. 인류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돌아보는 것인데, 우리들의 피에는 다정함이 들어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여러 인류 종 가운데 우세 종이 됐을 뿐 아니라 오늘날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 타인과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함으로써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정한 존재가 살아남아 우세 종이 된 것은 인류만이 아니었습니다. 늑대와 개는 모두 개과에 속하는 동물로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늑대는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개는 나날이 개체 수를 늘려나가며 번성하고 있습니다. 또 침팬지와 보노보

역시 비슷한 영장류이지만 보노보가 침팬지보다 더 성공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늑대보다는 개가, 침팬지보다는 보노보가 더 다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대신 도움이 되려 하고 협력하는 길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다정하고 협력하는 것은 개체와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책도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등 타인과의 협력을 말하는 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얼마 후면 우리는 또 새해를 맞습니다. 나 자신의 경쟁력을 올리려는 노력과 함께 타인과의 공생, 혹은 내가 속한 조직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타인은 지옥’이란 말도 있듯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이 책과 저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적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를 만듦으로써 살아남았고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정한’ 존재가 될 때 원하는 성공에 한걸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AF**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씬
다들룻 펄냄



글쓴이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29년간 일했고 2016년부터 서울 강남에 ‘최인아책방’을 열어 책방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만 파는 서점이 아니라 일하는 분들께 해법을 드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추천하거나 큐레이션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명상을 말하다



친절함에 대하여

“명상을 통해서 나는 단지 친절함을 배웠을 뿐이다.”
명상으로 평생을 지낸 어떤 성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닫힌 마음은 친절할 수 없습
니다. 스스로 친절하다고 여기게 될 때 인생이 성스러워
집니다. 인생은 고귀한 만큼 상처받기도 쉽지요. 인생이
성스럽다고 느낄수록 상처받기 쉬워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탄생의 과정을 지켜보고, 삶이 죽음을 향해
스러져 가는 걸 보게 될 때, 우리와 같은 감각 동물이란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국면에 친절함을 가져올 수 있습
니다. 친절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에 기여
하는 건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영똥한 다툼에 말려들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이미 분노
로 충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라는 명목으로
그 분노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친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절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
다고 그들을 향해 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피
는 모두 한 가지 색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마음이 굳어지면
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가로막습니다. 타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친절
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으로
기꺼이 힘든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함과 함께 살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니 위험하다고 할까요.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친절함은 평정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시들지 않습니다. 친절함이란 개인적 존엄성의 사회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잔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엄격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잠재 능력을 깨워 행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득보다는 손해를 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동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을 진실로 알고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며 그들을 일깨워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지요. 그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도록 돕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마음 챙겨 알아차림으로써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명상 시간이든 일상생활이든 항상 마음 챙기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명상에서는 친절한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 자신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마음,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4무량심)이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상태라고 하지요.

“친절함은 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 가지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는 에고(ego)가 줄어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에고가 강한 마음이 좋은가요. 아니면 에고가 열린 마음이 좋은

가요.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듯이 에고가 열린 마음일 때 가볍고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고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상태는 에고가 열린 마음입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전제된 마음이기 때문에 에고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신없고 슬픈 한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친구, 자녀일 수 있는 사람들의 허무한 죽음에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최고의 덕목인지를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심, 극도의 좌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러야 할 마음 상태는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인의 극심한 불행을 대하게 될 때, 함께 우울에 빠지거나 분노에 휩쓸리는 것은 진정한 친절함이 아닌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음 챙김을 통해서 갖추게 된 평정심으로 타인을 대할 때 진실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스로도 우울, 분노 또는 좌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절함은 결국 친절함의 주체인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정심으로 가득 차 스스로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을 때, 그때에야만 비로소 진실로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 없습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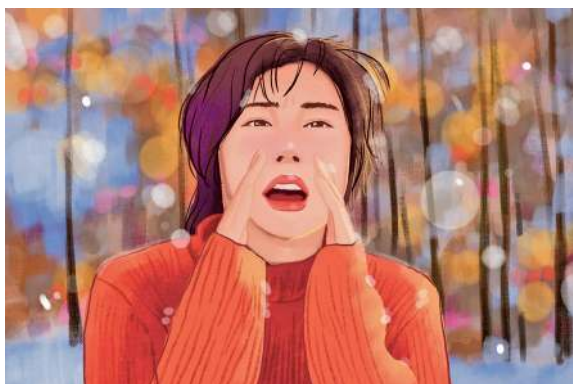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다이렉트 메시지(DM)로는 보낼 수 없는 마음



“오겐기데스까(お元気ですか).”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일본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특정 영화 속 상황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다. 주인공인 나카야마 미호(와타나베 히로코 역)는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원 한가운데서 숨을 몰아쉬면서 “오겐기데스까”를 외친다. 뒤에 붙는 말은 “저는 잘 지냅니다”라는 뜻의 “와타시와 겐기데쓰(私は元気です)”다.

영화 『러브레터』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흥행했다. 1999년 11월에 개봉한 이 영화는 전국에서 11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당시 관객들에게 일본 영화가 친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흥행이었다. 1998년 일본 문화 개방으로 일본 영화 정식 수입 및 상영이 가능해졌는데, 그전에 30만 명이 불법 유통된 비디오를 통해 『러브레터』를 봤다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큰 인기였다. 이후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 네 차례나 재개봉 됐는데 그때마다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올랐다. 『러브레터』는 영화가 만들어진 일본보다 한국에서 훨씬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 일본에 사는 지인은 “일본에서는 『러브레터』를 물어봤을 때 아는 사람을 잘 못 봤다”고 했다.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하다. 주인공인 히로코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약혼자 후지이 이츠키(카시와바라 타카시)의 추도식에 참석한다. 이후 이츠키의 어머니 맥을 찾는데, 학창시절 졸업앨범에서 우연히 그가 살던 옛집의 주소를 알게 된다. 이츠키가 너무 그리웠던 히로코는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본다. 편지를 수신한 것은 이츠키의 예전 학급 친구이면서 이츠키와 동명이인인 여성, 후지이 이츠키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죽은 약혼자에 대한 기억을 편지로 나누게 된다.

『러브레터』에서 편지는 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체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장소와 시점이 바뀐다. 주인공 히로코가 쓰는 편지는 현재를, 동명

이인인 후지이 이즈키가 쓰는 편지는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한다. 영화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미 세상을 떠난 한 남성 주변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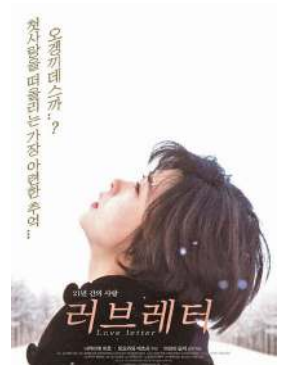
이와이 슌지 감독은 영화에서 편지를 주요 소재로 쓰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편지가 아주 일반적인, 러브레터로 마음을 전하던 시대를 보내왔다”며 “20대 중반부터 언젠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 2020년 개봉작 『ラスト 레터』 역시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편지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유리(마쓰 다카코)는 언니 미사키의 동창회에 언니의 부고를 전하러 갔다가 교시로(후쿠야마 마사하루)를 만난다. 교시로는 언니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유리가 한때 짝사랑했던 선배다. 유리는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릴 타이밍을 놓치는데, 교시로는 유리를 언니인 미사키로 오해하고 연락한다. 유리의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교시로와 유리는 손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미사키와 얽힌 사람들은 편지를 통해 그녀와의 추억을 다시 불러내 교환한다.

그의 영화 두 편을 보고 있으면 편지를 쓴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요즘은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을 바로바로 전할 수 있는 세상이다.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SNS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면 된다. 굳이 손으로 긴 편지를 써서 말을 전하는 것보다 메신저를 쓰는 편이 상대방에게 내 의도를 훨씬 정확하게, 오해 없이,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데서 오는 감정의 덩어리들은 SNS 세상에서는 모두 제거된다. 긴 글을 상대방에게

쓰는 시간 동안 찾아오는 옛 기억과 감정, 기다렸던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맞이하게 되는 감동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은 다이렉트 메시지로 불가능하다. 아마 『러브레터』의 주인공들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편지를 주고받는 대신 라인 메신저로 순식간에 서로의 정체를 파악하고 메시지나 몇 마디 주고받은 후에 상황을 종결하지 않았을까. 편지로 인한 시차와 불편은 감동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작은 카드라도 누군가에게 써서 그 감동의 공간을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글은 월간 『공군』 「영화로운 나날」 필자로서 쓰는 마지막 글이다. 약 2년간 글을 쓰면서 나 역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영화를 고르고, 글을 썼다. 월간 『공군』의 독자들은 다양한 직책과 연령대를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찬란한 청춘의 한 자락을 군 생활을 하면서 보내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방황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내 글을 읽으면서 숨돌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 영화를 떠올리면서 잠시라도 현실과 다른 세계를 상상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나의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한다. AF



영화 『러브레터』



글쓴이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2011년부터 기자일을 시작해 사건·사고, 금융, 보건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맡아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문화부에서 영화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클래식 특특



찾아 듣기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선가 들었던’ 음악을 찾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선가는 ‘들어 봤음직’ 하고 ‘귀에 편한’ 음악들로 골랐다.

모 전자제품 양판점 CF로 줄기차게 쓰이는 곡으로 오페라 리골렛토의 ‘La Donna è mobile’라는 곡이 있다. 흔히 ‘여자의 마음은’이라고 통용되는 이 곡은 오페라 주인공이 아닌 악역인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다. 단순한 2절의 반복구로 되어있어서 작곡할 때부터 작곡자 베르디가 대중적으로 히트할 것을 예감하고 공연 전에 악보나 연습 장면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 제작진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을 받아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상대로 현재까지 히트 중이다.

어버이날 라디오 신청곡으로 많이 올라오는 푸치니의 ‘O mio babbino caro(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아리아도 귀에 익는다. 하지만 어버이날 신청곡이라는 상징성과는 달리 실제 내용은 남친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지겠다는 아빠를 향한 딸내미의 협박이다. 극 내용이 코미디라서 그나마 애교로 비춰진다.

TV 시리즈나 광고, 어린이용 번안 동요로도 많이 쓰이는 곡은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투우사의 노래’다. 경쾌한 2절의 반복구에 반복되는 리듬으로 각인도 쉽고 멜로디도 흥겹다. 실제 내용도 투우 경기장 관객의 시점을 묘사한 곡이라 스포츠 경기의 선수 입장곡으로도 많이 쓰인다.

축제나 음악회 피날레로 빠질 수 없는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Brindisi(축배의 노래)’다. 남녀 듀엣과 흥겨운 반복구 합창이 왈츠 템포에 맞춰 울려 퍼진다.

영화 배경음악으로 삽입되는 곡들도 있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나오는 ‘Intermezzo(간주곡)’는 노래가 나오지 않는 관현악곡인데, 그 유려한 선율

과 짧고(그래서 더 좋다) 강렬한 반복구가 인상적이다. 여러 번 영화에 쓰이고 또 단독으로도 연주회에서 많이 연주된다. 전쟁 영화나 악역의 등장에 많이 쓰이는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2부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비행(또는 기행)’이다. 군대가 진군하거나 헬기 사격 때 등장한다.

선율이 인상적인 곡은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 지오’다. 계속 이어지는 비장한 현악 선율이 일품이어서 영화에서 슬프거나 아이러니한 장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주요 인물의 사망 신에 주로 등장한다.

세련되고 귀족적인 장면이나 호화로운 카페나 살롱 등에서 자주 삽입되는 여성 2중창은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의 ‘꽃의 이중창’이다.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의 고음과 저음이 절묘한 화성을 빚어내며 진행되어 화성도 선율도 꽤 고급스럽다.

승리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합창 음악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 4악장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다. 본디 악기만 쓰던 교향곡에다 사람의 목소리로 4악장에 장대하고 화려한 합창장면을 넣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다. 이미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만들어낸 최후의 걸작으로도 유명한 이 곡의 합창선율은 BGM으로 가장 많이 쓰인 곡 중 하나다. 예능 프로나 드라마에서도 매우 자주 나온다. 곡을 듣다 보면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머릿속으로만 음색을 구성하고 화성을 배치한 베토벤의 위대함이 피부로 와닿는 곡이기도 하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Nessun dorma’(아무도 잠

못 이루고; 통칭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불린다)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고음이 일품인 곡이다. 또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도 누구나 들었을 법한 오페라 아리아다. 혹 모든 성악가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지만 투란도트의 아리아는 드라마틱 테너라는 무겁고 질감이 묵직한 테너의 레퍼토리고,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는 고음과 장식음 처리에 특화된 영역의 주요 레퍼토리다. 스포츠의 체급 차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워낙 유명해서 테너와 소프라노의 대표곡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부분만 유명한 곡들도 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하면 떠오르는 곡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3막의 혼례의 합창이다. 신랑·신부 퇴장과 행진에 쓰이는 곡은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에서 나중에 나오는 곡이다.

찾아서 들어보자. 그리고 흥얼거릴만한 멜로디가 생겼다면 그걸로 족하다. 여유가 생기면 공연장도 직접 찾아보자. 클래식 공연이 비쌀 거라는 편견과 달리 요즘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혜택도 많이 배정하고 있어 쉽게 무료공연이나 온라인에서 관람료 지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으니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자.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도 공기를 직접 울려 고막에 전달하는 소리와 피부로 느껴지는 질감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같은 공간 안에서 손에 잡힐 듯한 소리를 느껴보자. 그게 500년 넘게 클래식이 살아 꿈틀대는 이유다. **AF**



글쓴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전공 만점으로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모교인 목원대학교에서 재직하며 수백 편의 오페라 주역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X세대가 Z세대를 만났을 때’

세대 분리에서 세대 통합으로...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월까지 진행되었던 공익 광고 문구이다. 이 광고는 기존의 X·Y·Z세대로 칭하는 세대 분리의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마케팅에서 나이는 시장을 세분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다. 이는 특정 나이 집단을 같은 집단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이 집단과 분리해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 공익 광고는 다양한 연령대들이 모여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일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공익 광고는 세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한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는 세대 통합의 관점을 반영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들을 매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X세대와 Z세대의

통합적 영향력을 정의하기 위해 ‘엑스틴(X-Teen)’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한 바 있다. 1990년대에 20대를 보낸 1970년대생(현재 45~54세) X세대들이 그들의 자녀인 Z세대와의 소통과 교감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강조한 용어다.

우리나라의 성장기에 10대를 보내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를 누린 X세대들은 집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대놓고 선언한 원조 신세대이다. 또한, 이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 손으로 돌리며 테이프를 감던 카세트에서 MP3를 거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디지털 시대의 격변을 경험하며, 수용한 세대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인 세대다. 또한, Z세대 자녀들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특성을 보인다. Z세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면서 마케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스포크 광고 중



전주에서 운영된 두겹상회

LG경제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X세대의 가정에서 식품, 음료, 가구, 가정용품 등을 구매할 때의 70%, 전자제품이나 의류, 신발, 외식, 여행 등의 지출에서 60%가 Z세대 자녀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존중하는 X세대 부모들은 Z세대 자녀들과 일상의 소비에서도 활발한 소통을 하며, 자녀들이 가정의 브랜드 선택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Z세대가 발견하고, X세대가 퍼트리면 트렌드

세대 통합의 관점은 이미 마케팅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하는 것은 Z세대이나,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엑스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 삼성전자가 컬러를 통한 맞춤형 가전을 선언하며 출시한 비스포크 가전 시리즈를 위해 제작한 “컴백홈” 광고 영상이 좋은 예다. 이 영상은 90년대 가요계의 혁명이라 불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배경 음악으로 세탁기, 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광고가

나가자 Z세대들은 배경 음악으로 깔린 서태지의 노래가 주는 신선함에 수백 개의 댓글로 관심을 표현했고, X세대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랩을 흥얼거리며 당시의 패션을 따라했던 젊은 날을 소환하는 광고 영상에 1,000만 뷰로 응답했다. 2022년 현재 비스포크는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 판매 비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전 시장을 리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Z세대와 X세대를 통합적으로 겨냥하는 마케팅의 또 다른 예로는 진로 하이트에서 진행한 “진로이즈백” 광고 캠페인이 있다. 참이슬이 Z세대에게 올드한 브랜드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진로 하이트는 소주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진로를 리브랜딩한 캠페인을 펼쳤다. 초록색 병 위주의 소주 시장에서 하늘색 파란 병과 돌려서 따는 은색 트위스트 뚜껑을 그대로 남김으로써 옛 진로의 외형을 기억하는 X세대의 향수를 자극했다. 대신 독한 술 진로를 16.9도의 낮은 소주로 전환하여 Z세대의 입맛을 수용했으며, 진로의 상징 캐릭터인 두꺼비를 Z세대의 감성에 맞춰 귀엽고 친근한 두꺼비로 변신시켰다. Z세대의 일상 여기저기서 등장하는 두꺼비 캐릭터를 SNS에 지속해서 올리는 한편, 두꺼비 캐릭터를 굿즈화하여

파는 가게인 “두꺼비상회”에서 판매하는 등 Z세대의 감성을 파고들었다. 2022년 3월 진로소주는 10억 병 판매를 넘어섰으며,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레트로로 일컬어지고 있다.

5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의 마케팅은?

마케팅 학자 필립 코틀러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류 최초로 베이비붐·X·Y·Z·알파 세대로 불리는 5세대가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세대 차이에 따른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세대간의 역학과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가 강력한 재원과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마케팅을 하지만, 대부분의 브랜드 가치는 Y세대와 Z세대의 인정을 받을 때 창출된다. 앞으로 X세대와 Z세대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넘어서 새천년에 성인이 되어서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Y세대와 이들의 자녀인 알파 세대의 통합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F**



글쓴이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광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래드(Korad, Ogilvy & Mather)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으며, 2003년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카피라이팅, 광고심리, 디지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다. 민간·공공 영역의 소통 메시지 전략 수립을 도와주고 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후회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12월, 가을의 문턱을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2022년이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처음 한 해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이 세워놓은 계획은 과연 얼마나 이루셨나요?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니, 계획을 까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정도만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후회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후회는 실패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기에, 우리에게 안 좋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후회는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후회가 인간만이 가진 고등능력이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자기노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후회에서 따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후회는 단순한 감정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인지의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연민’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우리는 비슷한 곤경에 처한 친구를 위로할 때보다 더 가혹하게 나를 대하지는 않나요? 자책하거나 비하하는 대신, 친구나 가족을 위로할 때처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자존감을 회복하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입니다. 나를 3인칭으로 지칭하여,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후회한 상황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노출로 후회를 짊어지는 부담을 덜고, 자기연민으로 따뜻하게 나 자신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를 통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면, 우리는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실패에 집중하기보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 동료가 전하는 따뜻한 격려가 있다면, 이 과정은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겠죠.

공군인 여러분! 후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후회의 과정이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서로를 응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하사 장석현(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

겨울에도 만개할 활주로의 노루귀

더위보다 열정을 느꼈던 뜨거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어떤 꽃이 겨울을 준비하고 있나요. 한 활주로에서, 아버지께서 정성껏 기르셨던 한 송이의 꽃이 드디어 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스무 살의 6월, 집을 떠나 부사관교육대대에서 13주간의 훈련을 받고 아버지를 처음 뵈었습니다. 임관식 전날 밤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에 잠이 쉬이 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가족을 보게 된다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않을까, 괜히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기쁘고 또 반가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건네신 한 마디는 “왜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간 열심히 훈련을 이수하고, 군인으로 성장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그 어떤 수고했다는 말들보다 아버지의 그 한 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도 아버지께서

는 그저 ‘힘들었지?’ 하며 웃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음이 터졌고 그렇게 돌아가는 차안은 말 없이도 행복이 가득 찬 공간이 되었지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 가득했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억들이 무색하게도 시간은 흘러 찬란했던 날들은 지나고, 이제는 다시 도전하고 성장해야 할 초급간부로서의 시기가 다가와, 광활히 펼쳐진 활주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게 처음이 될 사회생활의 시작에 능률한 군인의 모습은 어디 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아버지의 등을 쫓는 아들이 아닌, 든든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곁에 서 나란히 걷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강풍에도 꺾이지 않는, 거친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을, 그런 강인함을 길러, 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이지만 오늘만큼은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필승!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편지양식은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읽는 공군

글 | 6급 원지희(제81항공정비창)

지금 당신이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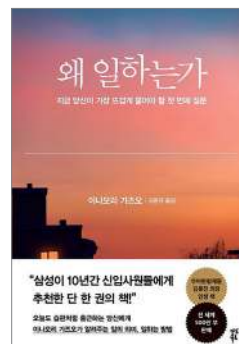
형편상 가사, 육아 일정 부분을 도우미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청소가 안 된 것 같아 확인해 본 적이 있다. 돌아온 답변은 청소했다는 말뿐, 할 일을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투로 더 따지자니 감정싸움이 될 것 같고, 당장 사람을 구하기 힘든 아쉬운 내 입장으로 결국엔 내가 청소해버렸지만 찝찝한 마음은 여전하다. 혹은 금방 끝낼 일을 질질 끌거나, 내 할 일 끝났다고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쉬운 일만 골라 하는 등, 여러 형태를 보면 월급 값을 하나? '과연 일은 어떤 의미이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 여지가 남는다. 어느 날, 그 해답을 줄 것 같은 임팩트 있는 책 제목에 끌려 순간 홀리듯 순식간에 읽어 내려가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일의 의미는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저자는 정의했다. 그리고 물어본다. 몸이 부서질 만큼 제품에 영혼이 스며들게 했는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염원하며 모든 힘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신이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준다고... 모험심이야말로 창조의 원천이므로 창조하는 이는 전문가만이 아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심자라 했다. 그러니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발상과 의욕만 있다면 자격이 충분하다며 독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이미 걸어간, 평탄한 길을 걷기보다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그는 조언하며, 최고가 아닌 완벽을 추구하라고 한다.

최고라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한 상대적인 말이므로 비교가 아닌 오직 완벽을 추구하길 당부한다. 완벽은 절대적이며, 완벽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의 지론이다. 그는 재무 담당 직원이 지울 수 있도록 연필로 숫자를 쓰는 직원을 호되게 꾸짖는다.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우고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니 단순한 실수가 없어지지 않는다”

서두의 도우미 사례처럼 ‘다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냐’식의 생각을 버리자. 직장생활, 일터는 문제 해결의 연속이며, 해법을 찾는다는 면에선 맥락이 같고, 중요한 것은 했다는 자체가 아닌, 그런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냐 하는 것이다. 즉, 자기가 하는 일의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는지, 노력의 과정이 해법으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해법을 찾으려 애쓰는 자체가 바로 ‘일’이고 각자의 위치는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책 덕분에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었다. 습관처럼 출근하고, 방향 잃고 흔들리는 나침반이 아닌 명확한 인생의 나침반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AF**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다산북스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눈

지나가는 한 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추억으로 남겨두고 성숙해져 가는 나를 발견하길.

눈이 펄펄 오는 겨울만 되면, 아이들만큼 신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정말 많습니다.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 눈을 밟는 촉감은 겨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절로 다가오게 합니다. 눈발을 지나간 발자국은 그대로 눈 위에 남습니다. 아이들은 눈발에 남겨진 발자국이 더 깊게, 더 많이 남겨지도록 잔걸음으로 꺾꺾 자국을 만듭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기도 합니다. 나름의 예술 활동에 열중하다 보니, 온몸에 눈이 묻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역시 삶에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려 하지는 않았나요? 더 많은 장소를 다니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워놔던 목표들을 모두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지나가는 1년에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압니다. 눈 위에서 벌어진 예술 활동은 그대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깊게 새겼던 수많은 발자국은 계속 오는 눈에 희미해집니다. 공들여 쌓아놔던 눈사람은 따뜻한 햇볕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발자국을 많이 남겼든, 깊게 남겼든, 눈사람을 크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모두 사라집니다.

다음날 다시금 작품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아이들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짧게 슬퍼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눈이 또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작품들은 햇볕에 녹아버렸지만, 발자국들과 눈사람의 흔적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행복했던 겨울의 기억, 재밌었던 기억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저번에 하지 못했던 놀이도 해보리라, 새로운 다짐도 할 것입니다. 겨울을 거둬들여 지나다 보면,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기억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어른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아쉬운 한 해였든, 기억에 남는 한 해였든, 소복이 쌓여가는 눈에 혹은 따뜻한 햇살에 지나간 2022년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설령 원했던 바를 많이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가올 한 해가 있기에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유달리 불운하고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다면, 아이들처럼 짧게 슬퍼하십시오. 깊은 슬픔과 성취의 기쁨에 너무 오래 잠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두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2023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2022년 무사히 한 해를 보낸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따뜻한 포옹을 남깁시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곡, <걱정말아요 그대>의 가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AF}

마음의 소리

방정원

6117**@hanmail.net

공군 속에서, 공군과 함께, 공군을 위해 36년 8개월간의 세월을 보내고 전역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공군이 그리워서 우연히 『공군』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한 지 6개월이 넘어가네요. 한 달에 한 번 공군의 소식지가 우편함에 있는 날은 유독 기분이 좋고 얼른 펼쳐 봅니다. 그리 두껍지 않은데도 다양한 행사 소식과 정보가 들어있어 좋네요.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공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대한민국 공군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하는 공군인들이기에 안전하고 더욱 발전하는 공군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F. 오랜 기간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군』은 공군을 그리워하는 독자님들이 여전히 공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도록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의미 있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김민현

minhyuny**@gmail.com

평소 전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보고 싶어 공군에 입대한 장병이자 독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Aero Detail>인데, 지난 11월호에서 소개된 적에게서 모습을 숨기고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수준 높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랩터가 마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은신한 스파이처럼 멋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에 띄는 기술력으로 탄생한 KF-21도 멋지게 비상하길 기대합니다!

(AF. 공군에 입대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좋아하는 전투기는 마음껏 보고 계신가요? 우리 하늘을 지키는 것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군의 일원이 된 독자님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군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향숙

neuf971**@naver.com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중전력 및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축하비행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행사를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든든한 수호자, 국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강의 정예 공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특히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공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졌습니다.

(AF. 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다채로운 행사들이 국민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꼭 방문하셔서 공군의 모습을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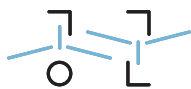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터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3 4